

※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  
PROSECUTION SERVICE

대변인실 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# 대검찰청

## 보도자료

2024. 7. 4.(목)

자료문의 : 정책기획과  
전화번호 : 02-3480-2120  
주책임자 : 정책기획과장

### 제 목

**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 
민생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한 모범검사 선정**  
- 2024년 상반기(91회) 모범검사 3명 선정 -

#### □ 2024년 상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

- [제도개요]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우수 검사를 ‘모범검사’로 선정하여 격려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, 전국 약 2,000명 검사 중에서 매년 상·하반기 각 3명씩 선정
- [선정기준] ‘모범검사’는 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 가운데 하나로, 형사부·여성아동범죄조사부·강력범죄수사부 등 주로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공직관, 근무자세 등이 두루 우수한 검사를 선정하고 있음
- [선정절차] 2024. 6. 3.(월) 개최된 대검 ‘포상위원회’에서 전국 고검 추천 15명의 후보 중 3명 최종 선정, 2024. 7. 4.(목) 검찰총장이 상패 전수

#### □ 수상자

※ 수상자별 선정 사유는 별첨 자료 참조



김희연 검사  
(서울중앙지검)



류승진 검사  
(청주지검)



이홍석 검사  
(부산지검)

## 1 김희연 검사(사연 39기)

소속	주요 경력	상훈
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	수원지검(2014) 수원지검 안양지청(2017) 창원지검(2019) 서울중앙지검(2022)	- 법무부장관 표창 (2016 조직범죄 업무유공) - 우수수사사례 5회 (강력 4회, 공판송무 및 형사 각 1회)

△ 2010년 검사로 임용된 후 근무기간 대부분 일선 검찰청 형사부·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인, 성폭력, 보이스피싱, 다단계사기 등 민생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였고, ‘강남 마약음료’, ‘유명연예인 마약투약’ 등 마약범죄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음

### 가. 마약범죄 엄단하여 마약류 확산 방지에 기여

- 식약처 「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」을 활용, 이른바 ‘좀비마약’이라 불리는 펜타닐 패치제를 무분별하게 처방, 유통시킨 의사를 국내 최초로 구속기소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근절
- ‘강남마약음료’ 사건 주임검사로서, 경찰과 실시간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자들 구속기소하고, 약 300명에 이르는 계좌 및 출입국 내역 분석을 통한 끈질긴 수사로 공범을 추가 규명하여 구속기소
- 유명연예인 마약투약 사건 주임검사로서, 1만여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를 추가 확보, 마약범죄 외 증거인멸 및 보복협박 등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 기소
- 경남 일대 외국인 필로폰 공급조직을 추적하여 밀항을 기도하던 주범과 공범 2명을 구속하고 관련 조직을 일망타진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통 방지에 기여

#### 나. 철저한 과학수사를 통해 살인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

- 농막 안에서 피해자인 배우자의 목에 줄을 감고 몽둥이로 수백차례 온몸을 때려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혐의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,
- 현장에 있던 장화, 해머 등을 압수하여 대검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혈흔에 섞인 피의자의 DNA를 발견하여 살인 범위를 명확히 규명
- 혈흔 분석결과 및 부검 감정결과 등 과학수사를 통해 밝혀낸 객관적 증거를 법정에서 현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피고인 엄단

#### 다. 민생범죄 엄단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

- 데이트 폭력을 일삼던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의자를 무고죄로 인지하고 구속기소
- 다단계 사기 사건 공소수행 중, 30권의 방대한 별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고인이 다단계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수령한 사실 밝혀내 유죄선고를 이끌어냄
- 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한 사기 사건에서, 피의자가 수사 중에도 사기범행을 지속한 사실 확인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저지

## ② 류승진 검사(사연 40기)

소속	주요 경력	상훈
청주지검 형사3부	제주지검(2017) 서울동부지검(2019) 법무부 형사기획과(2021) 청주지검(2022)	- 검찰총장 표창 (2014 검찰업무유공) - 법무부장관 표창 (2015 법질서유공) - 우수수사사례 8회 (반부패 및 형사 각 3회, 강력 2회)

△ 2011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일선 검찰청 형사·공판부에서 주로 근무하며 관급공사 입찰, 보조금 사업 등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단하고, 작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철도 침수사건 수사에 참여하여 이 사건이 총체적인 재난대응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을 밝혀내는데 기여함

### 가. 공직사회 인사 및 입찰비리 엄정 대응하여 부정부패 척결

- 국립소방병원 설계공모 입찰에서 입찰참가업체, 소방공무원, 심사위원이 유착하여 입찰 관련 자료 유출 등의 수법으로 조달청을 조직적으로 기망한 사실 규명하여 3명을 구속하는 등 11명 기소
- 입찰비리 수사과정에서 소방청장이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 규명하여 소방청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소방청이 인사청탁 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

## 나.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조금 편취 범죄 엄단하고 재발방지책 마련

-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용역대금을 지급한 다음 돌려받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하여 주범 2명 구속하는 등 9명 기소
- 수개월에 걸쳐 계좌추적, 사무실 등 압수수색 등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혐의 전모를 밝혀내어 도덕적 해이가 팽배한 공적자금 수혜 분야의 경각심 고취하고 관련자들을 엄단
- 나아가 피의자들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 발생 원인을 분석,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률개정 등 재발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동종사건 재발에 기여

## 다. 오송 지하철도 침수사건의 사고원인과 책임자 철저 규명

- 2023년 7월 발생한 '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(14명 사망, 16명 상해)' 수사팀에 참여하여 관련기관 및 관계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특히 공사현장 관리·감독 책임 및 재난안전체계, 매뉴얼 검토를 전담하여 재난대응 과정의 문제점 규명에 기여
- 면밀한 증거수집과 법리검토를 통해 본건 사고가 시공사의 제방 훼손, 부실한 공사 및 하천 관리, 재난대응 부실, 도로관리 부실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(人災)였음을 규명하여 책임자 44명(법인 2개 포함)을 기소

### ③ 이흥석 검사(사연 42기)

소속	주요 경력	상훈
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	창원지검 밀양지청(2015) 인천지검 부천지청(2017) 인천지검(2019) 부산지검(2022)	- 검찰총장 표창 (2020 마약퇴치유공) - 우수수사사례 12회 (마약조직 4회, 형사 3회, 강력 2회, 공판송무 및 범죄수익환수, 사무감사 등 각 1회)

△ 2013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일선 검찰청 형사부·공판부·강력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마약, 도박 등 민생범죄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으며, 특히 억울하게 구속송치된 피의자를 구속 취소 후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무고함을 밝혀내고 사경이 불송치한 변호사의 금품수수 사건을 재수사요청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 등 사법통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음

가. 적정한 사법통제로 인권을 보호하고 범행 전모를 충실히 규명

- 사경이 체포영장으로 피의자 체포 후 체포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자 별건 범죄로 구속한 사안에서, 해당 구속영장의 절차상 위법을 적발하여 피의자 즉시 석방하고 전면 보완수사를 요구,
  - 결국 제보자의 허위제보 사실로 피의자가 누명을 쓴 사실을 밝혀내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음
- 변호사의 금품 수수 사건을 사경이 관련자 조사없이 불송치한 사안에서,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피의자를 재수사할 것을 요청하여 사건 송치
  - 해당 송치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피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의자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전모를 규명

나. 치밀하고 끈질긴 추적으로 대규모 은닉재산 적발하여 범죄수의 박탈

-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수사하며, 450개에 이르는 계좌분석, 전국 도박사이트 직원들의 재판 기록 전수분석, 법인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하여 조직원 9명 기소(4명 구속)하고, 535억 원 범죄수의 환수
- 주범들 기소 후, 조직원들의 여죄 및 은닉한 범죄수의 추적 수사 계속하여 주범의 1,445억 원에 이르는 추가 자금세탁 범행을 포착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피카소, 이우환 등 유명 미술작품, 수억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, 귀금속 등 범죄수의 환수
- 나아가 범죄수의환수에 가담한 인적사항 불명의 공범에 대해 전국 사건 검색, 통신 및 계좌추적 등 끈질긴 추적으로 피의자 대포폰 및 실거주지를 밝혀내 검거하여 기소

다. 긴밀한 국제공조로 마약조직 총책 신속 검거하여 엄단

- 태국 마약청(ONCB), 태국 이민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해외에 체류하며 필로폰 밀수 범행을 저지른 마약조직 총책의 신원을 특정하여 국내로 강제송환하고, 철저한 증거수집으로 총책의 자백을 이끌어내 여죄 및 공범 등 범행 일체를 규명하여 밀수범행 엄단
- 마약 유통책 소지 물품에 대한 DNA 감정, 압수수색 등을 통해 비대면거래와 텔레그램을 통한 연락으로 철저히 신분을 숨긴채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킨 피의자들을 모두 특정하여 마약 국내유통 관련 범행 전모를 규명